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37호 2014년 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5083 Fax. 703-462-5083
e-mail: snuuaa@209a1.com
The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오인환 회장 2014년 신년사

2014년은 미주 동창회 대도약의 원년 대도약을 위한 후원금 모금이 숙제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에서는 과거 회장단에서 이루어 놓은 2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30년을 향한 '대도약'을 위한 3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0만 달러를 목표로 기금 모금을 시작하였습니.

무엇 개인이나 단체는 '꿈의 크기'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대도약'을 위한 꿈을 키우며 도전하기 위해 여기에는 다른 할당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성공만이 희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 동창회와 같은 기금 모금과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와 미주 동창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심시일만으로도 기금 모금에 동참 하셔서 미주 동창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살터로 등기를 들고 있는 미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가 숭실하던 모교를 보고, 회원간 친목을 다지며, US IRS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서 해야 할 charity and education (예: 자신 및 장학)사업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나 미주 동창회에서는 미주 동창회의 '대도약'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미주 동창회의 성공한 발전을 위하여 ONCE IN A LIFETIME 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의 정체성 과거, 현재, 미래

허용출 (문리대 67)
Univ. of Washington 교수
전 서울대 교수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대학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보내주고 배움에 대한 욕망을 재추르했던 서울대 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보곤 한다.

동문들의 입학과 졸업 시기, 단과대학의 위치, 전공분야, 개인의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각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서울대학의 면모가 한국의 경제, 경제, 사회 및 국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문들 각자가 부각된 자기 자신을 내어 국가와 사회에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은 누구든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 각일 것이다.

이런 자부심은 결코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 경제, 경제

계 등 한국의 근대화에서 서울대 동문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국책의역으로 너무 잘 알려져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히 개인 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치환 시기마다의 도전과 문제에 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힘나고 높은 경쟁을 뚫고 일 해했다는 특별한 신념의식과 의 경제발전, 민주화 등과 아울러 지면서 서울대 동문들은 다양한 에서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앞에 계속>

이 소식에 두 동문에서는 이미 각자 개인 담의 3년 담리를 보 내주셨고, 다른 한 분은 3년 담 리를 Pledge 하였습니.

미주 동창회의 서울대 미주 동 문 각자가 서울대 동문으로서 self esteem, pride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 내므로

서 가능합니다. 머리모만 아는 것을 넘어 passion and heart 를 동원하여 결과를 낼 수 있 습니다. Group Intelligence의 결 과입니다. 대도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서울대 발전으로 이 데서나 사회적인 책임을 건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미주 동창회 최초

IRS 감사대비 내부감사 실시

지난 해 6월 21-23일 제22차 전 국 평의회에서 대 IRS 감사에 대 비한 내부감사 계획을 발표하였 으며, 제12대 회장단이 7월 1일부터 총회 임무를 시작함에 따라 미주 동창회의 25개 지역 동창회 의 내부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을 마치고 SNUA-USA Audit Committee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내부 감사 필요성과 배경 은 동문들이 아는 바와 같이 미 주 동창회와 각 지역동창회를 위 해 IRS로부터 비영리 기관의 Group 회계를 받았으며 동창회의 모든 수입에 대한 Income Tax의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총동창회 및 지역 동창회는 비영 리 단체 501(c)(3)의 조항 중 509(a)(1) 및 170(b)(1)(A)(vi) 조 항에 따라 그 혜택 중 하나는 동창회 기반 동문들의 Income Tax deduction이 백만 달러까지 가능해 졌 는 것이다. 이런 혜택에 따른 IRS Annual Report 책임 또한 함께 지 게 됐으며 기타 동창회 활동 도 한 면제선정시의 동창회 목적과 일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또한, 동창회의 수입 부문에는 일반 기부금 총액이 동창회 총 수입의 1/3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무 조항 등이 있다. 혹 실수로 위 의무 사항인 연례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이 에 대한 penalty가 심각하다는 점 도 또한 알아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의무 이유로 12대 동창회의 활동기록 중 하나도 반 약의 IRS 감사에 대비, 미주 총 동창회와 25개 지역동창회에 대 한 세검보고 현황을 검토하기 위 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구체적인 감사 계획표와 참고 사 류를 전달 미주 동창회장, 지역 동창회장과 재무담당 감사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동창회 가 IRS 규정에 맞는 건전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내부감사는 총동창 회와 지역 동창회의 IRS보고 의 무에 대한 상대편에 의한 것이

지 특정 동창회를 중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혀놓 다. 또한,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세검 보고, 세검보고 양식과 요령, 지 침서를 작성해 지역 동창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주 총동창회 감사 위원회를 소하고 감사에 대한 의견을 있을 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 평의회장으로 <박순 (Chicago, jkpcsdvnc@com) & 박진 성 (NY, changsokcin@att.net) > <노상 선 (DC, cap_noh@yahoo.com) > <김지 옥 (LA, jkim@yahoo.com) > 동문들 등 이 수고하고 있다. ***

<감사위원장 배규원 (Heart-land, kybae853@earthlink-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446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와 관련 후원회비가 원동력입니다. 매년 10월 중 3명(30%) 정도가 동창회비를 내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절실요 구되는 때입니다.

제23차 전국 평의회 회의 일정 및 참가 등록

▶ 6월 27일(금) = Brain Network Workshop (한국학·생명과학) & 서울 유대 순회공연 관람 28일(토) = 제23차 전국 평의회 회의 & 판 악식대 Conference ▶ 6월 29일(일) = 전선 Go! 대회 및 시상식

▶ 참가등록 Site: SNUA-USA National Board Meeting Tel. 703-889-1340
http://www.starboardmeeting.com/Starboard/mef710-131223671 & key=D4396. Reservation: December 23, 2013까지

제11대 - 제12대 미주 동창회 회장단 인수인계 내역

Transition Checklist for
Outgoing and Incoming Presidents
(회장단 인수인계 Checklist 11-12-4)

Transition between the outgoing and incoming presiden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completed between one month before the end of the outgoing presidential term and one month after the incoming presidential term began. Therefore, the timely transition must provide the incoming presidential team with assistance in performing their business.

(회장단 인수인계는 이전 사정물 관리 인수에 일기 전부터 1개월 전 부터 실시하여 일기 시작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자기 회장단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Note: As far as financial transfer is concerned, only positive balance can be transferred to the next presidential term. (주의: 재정상에 관한 한 흑자에 한하여 인계 함.)

#	Transition Items (인수 인계 항목)	Amounts/Of Pages (단위/페이지)	Outgoing Officer (인계자 서명)	Incoming Officer (인수자 서명)	Comments (비고)
1	Original Copies of Bylaws and R&Rs (in Korean and English) (회칙 및 세칙 원본 (한국 및 영어))				
2	Entire cop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ration and tax return records (비영리단체 등록서류 사본 일체, IRS 세액 보고 및 서류 사본 일체)				
3	Records of General Business (경영 실무 서류)				
4	Entire financial records audited (General Expense, Korea-AI Permanent Sponsoring/Trustees Donation, Special Fund, Fund for Alma Mater) (재무 운영 기록)				
5	Entire list of members (Soft and Hard copies) (회원 명단 일체 (Soft and Hard Copies))				
6	Entire financial records and bank statements of Korea-AI Permanent Sponsoring/Trustees Donation and Special Fund (경제 후원회 증서 이사회비율 배분기금 관리 서류 및 은행서류 일체)				
7	Entire financial records and bank statements of Fund for Alma Mater (영국 발간회 관리위원회 기금 관리 서류 및 은행서류 일체)				
8	Entire financial records audited (General Expense, Korea-AI Permanent Sponsoring/Trustees Donation, Special Fund, Fund for Alma Mater) (감사청 영문 재무 (경영 비, 경제 후원회 증서 이사회비율, 한국 기금 모금 위원회) 기록서 일체)				
9	Entire meeting minutes and transition records in maintenance (보통 운영 과기 회의록 및 인수인계 서류 일체)				
10	Entire assets accumulated for newsletter and Know-how (Computer Data, Disk, CD's, Software, Photographs, Design, etc.) (회보 관리 및 기타 흑한 자산과 Know- how 일체 (Computer Data, Disk, CD's, Software, Photographs, Design, etc.))				
11	All other records and paperwork (기타 서류 일체)				
12	Positive Balance transferred (흑자 재정 인계 여부)				Positive Balance (흑자 이월금) = 23441 11/21/13

간사 서명/서명:
(Auditor's Name/Signature)

날짜: 8/4/13
(Date)

모교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모교 서울캠퍼스 도서관이 40년 이
상된 노후 건물로 계획된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에
이루어, 이에 도서관은 지난 해부
터 새로운 공간을 위한 리모델
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으로 다과과 같이 Nara가리인
과 리모델링 프로그램 캠페인이다.

▶ Naming모금 캠페인은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시기에 선
배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영
한 기적하도록 해놓는다.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
인(은)은 중앙도서관이 중앙도
서관과 함께 역할을 다하기 위
해는 넓은 시설의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5월 초전직 동문이 '중앙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
로 50억원, 이 외에도 300여 명
의 동문들이 50여만 이상을 기부
했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400억원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겨
둘 때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
갈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미주 동창회장 칼럼

우주과학에서 시작,
사회과학 분야서 박사학위

오인환(문리대 63)

미주 동창회장
Organizational Leadership
경영학 박사, Univ. of Phoenix

<한민족의 Group IQ를
높일 수 있다면>

지난 해 12월 10일 Teleconference
와 Computer Online 으로
Doctoral Dissertation Defense
를 통과하여 지난 4년 8개
월간의 긴 박사학위 과정의 대
단원을 마쳤다.

논문과 학위의 주제는 미국의
한민족이 미국사회에 적응
하고 성공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구명하는 것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개인 차원에서
서, 한민족 동포사회 차원에서
서, 그리고 미국정부 차원에서
서인 Leadership 이 필요함을 규명
한 것이다.

논문과 더불어, Penn State, U of
Maryland 에서는 Astronomy and
Astrophysics 박사 과정을 수료
했고, 직장에서는 NASA Space
Miss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r, Homeland Security,
Defense Department 등에서
System Engineering, Process En
gineering, Quality Engineering,
등으로 40년 근무한 scientist

가 사회과학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동안 회사에서 Senior Man
ager를 오래 했고 여러 단체에서
사회정치를 많이 한 경험이 있
어서 가능했다.

평소 본인의 본래 연구 관심사는
Leadership & Group IQ 에 관
한 사상으로 한민족 동포들이 개
인적으로도, 유수단체에서도 모
여 group 을 형성하면 그 힘이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늘
Group Intelligence 가 약해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으며 안타까운
정각에서 그 현인을 규명하고 싶
어서 시작한 것이 이번 박사학
위 연구도 이어졌다.

미국생활 42년, 미국 직장 40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받은 학위
를 바탕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민족 동포들과 토론하고 상의하
면서 미국사회에서 한민족의 적
성과 동화는 물론 건전한 시민
이 되어 미국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
고 싶다. 그랬다면는 생각이다.

앞으로 Leadership & Group IQ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동안 박사
학위 과정의 서 얻은 지식과
Leadership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한 분야에 있는 미주 동
창회 회장직을 잘 수행하여 도
약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고등학교의 분당
서울대 병원 발전 자문위원회에
서 자문의 한 것이다.

미국과 더불어, Penn State, U of
Maryland 에서는 Astronomy and
Astrophysics 박사 과정을 수료
했고, 직장에서는 NASA Space
Miss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r, Homeland Security,
Defense Department 등에서
System Engineering, Process En
gineering, Quality Engineering,
등으로 40년 근무한 scientist

서울대 - 북경대 총장제10회 베이징 포럼 참석

모교 오인환 총장(사건)은 지난
해 11월 1일 '모멸의 회회와 공
동 번영 - 회회와 진화(The Har
mony of Civilizations and Pros
perity for All - Retrospect and
Prospect)' 를 주제로 중국 조
대에서 개최된 북경대 주최 '제
10회 베이징 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UN, 중국 교육부, 주요 대
학의 총장들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 및 필리핀 미국 전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
지를 전했다.



지난 2004년에 시작된 베이징
포럼은 지난 해로 10주년을 맞았
으며 이에 걸맞는 기념 행사와
전시회 등이 마련됐다.
오인환 총장은 베이징 포럼에
앞서 10월 31일 북경대를 방문
한 Wang Eung 총장을 비롯한 북
경대 교수들과 서울대 - 북경대 총
장학 순례를 가진 것으로
오 총장은 특히 12월 서울대

서 개최된 2013 BEJING 포럼이
북경대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을 부탁한 바 있다.
북경대 Wang 총장은 서울대
경과가 후회와 진보의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양교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
고 의견을 가진 것을 적극 협력하
는지를 보였다.***교도 홍보상



뉴욕 출신으로 서울에서 석·박사 나수호 교수

‘검은 꽃’ 번역 한국문학 번역상 수상

서울대에서 국어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뉴욕 출신의 나수호(40·사건) 한국외대 동문인 대학원 교수인 그는 지난 해 11월 제 11회 한국문학 번역상을 받았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 사랑의 모습, 당시의 역사를 지구인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나수호 교수는 “검은 꽃”을 영어로 번역한 이유를 이야기 밝혔다.

그는 “백시파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인들에게도 일제 강점기 즈음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소한 역사”라며 “‘검은 꽃’은 당시 한국인이 사랑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태평양 전쟁 이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잘 알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영하 작가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소설 ‘검은 꽃’은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일제강점기를 하던 1905년 양국 국민 일제도 호를 타고 백시파로 건너간 조선인 1천 33명의 이야기로 담겼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광명대회를 진전되던 그들을 떠난 건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는 농장 노동자의 삶이었다. 대륙 식민지시대 속이 백시파로 채워 노예로 팔려나 갔다.

나수호는 “한국인도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외국인도 다른 관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뉴욕 출신으로 뉴욕주립대

학(SUNY)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나수호는 일본 대문문학에 관심을 두다 1905년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 시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후 한국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광’을 바탕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 석·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설화·민화·전설·신화 등 한국 구비 문학에 특히 관심을 썼다.

본명인 ‘찰스 라 슈어(Charles La Sure)’ 중 ‘찰’의 한자음을 따 한국식 이름을 ‘나수호(那秀昊)’로 만들었다.

그의 주 전공분야는 거리가 조금 먼 현대 소설을 번역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 그는 “같은 문체에도 구비 문학의 숨결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작가는 이 소설을 쓸 때 판소리와 같은 우리 구비 문학을 생각하고 집필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 그런 스타일을 재현하려고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한국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한국문학 번역 신인상을 받은 그는 작 10년 만에 다시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지난 10년 한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도 넓어졌을 터. 2003년부터 대외 강단에 선 그는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했다. 번역 실험과 스타일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 그는 생각한다.

“번역은 혼자 또는 두 사람이 하는 작업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여러 학제학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보는 법을 알게 된 점이 큼니다.”

UCLA 한국미술사 유일한 전공자 킨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재학중



“역동적인 한국미술사에 대해 전공도 바꿨죠” UCLA 한국미술사 유일한 전공자 킨현식, “세계화로 기여하고 싶어”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입학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국 미술사의 세계화로 기여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유일한 한국미술사 전공 미국인인 킨현식(30·사진)씨가 밝힌 말이다.

UCLA에서 집중도의 진정 사랑한 미술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같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 재학 중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현재는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재

학 중이다.

한국 전통이 서양 미술사적인 경향과는 다른 2003년부터 2년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화국에서 영어 교과목에서 영어 교수로 일하면서 한 한국 미술사에 대해 학과 담당과 교수와 함께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의 미술관을 두 번만 한국 작가들과 교류하던 그는 이에 전공을 한국미술사로 바꿨다.

“수업장을 주조했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특한

풍을 유지하다가 19세기 개항 이후 급격하게 서양 화풍으로 기술이 들어오는 점,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

한국에 지음은 작 7년째, 수준급 한국어 실력만큼은 강인해 “아직도 한국어는 논문 하나를 1주일 동안 붙들고 읽는 때도 있다”며 “한국어 공부에 계속 흥미를 보였어요.”

그는 또 “UCLA에서 한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지도교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지도를 따라 한국 미술사 등의 관심을 당부했다.”

Cerritos 조재길 의원 신간 출간

캘리포니아 Cerritos 시 의원인 조재길(당선 61) 동문인 그는 해 12월 21일 제11회 한국외대 동문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다음은 조재길 동문의 출판기념회 때 대한 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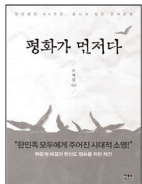
2013. 제11회 이 겨울이 아름다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길잡이 새해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정성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섰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오마하 대통령, 미국내 대통령,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한반도정세의 종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 미주 시정회의와 오마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동안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방송 중 몇 차례 대학 특강과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경민, 시민 운동가, 학생, 예 비역 장성 등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 만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미국 정치인들과도 한반도 대한 무관심과 무지, 한국인들의 전쟁 불감증과 편협된 사고에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1983년부터 30년간 한반도 정세와 핵문제를 연구해 ‘한반도 핵문제의 종착지’(1994년), ‘대북제재가 한반도 평화의 길’(2000년)을 저술하고 2006년 중국 연변 대학에서 ‘조선반도 핵문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한반도 시국을 생각하며 대외가 먼저다. 정경협정 60주년, 지리적으로 많은 한국전쟁(도사출판 한을)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란 학문적 관점에서 해를 생각하며 대외가 먼저다. 정경협정 60주년, 지리적으로 많은 한국전쟁(도사출판 한을)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란 학문적 관점에서 해를 생각하며 대외가 먼저다. 정경협정 60주년, 지리적으로 많은 한국전쟁(도사출판 한을)을 발행했습니다.



이재현 동문 맨하탄서 개인전

한국 중진화가 이재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3일까지 두리 미술관의 신진회관에서 열렸다.

작가는 미국 대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를 아바지 대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있다.

공모전으로 권두

정효성 동문 LA서 가야금 독주회



가야금 연주자 정효성(사진) 동문의 독주회가 지난해 12월 7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가야금 산조 한 아나와 현대음악 연주에도 능한 정효성 동문은

이번 독주회에서 정악 ‘별곡’, 이성진 작곡 ‘꽃이네’, 백범준 작곡 ‘정향’, 최현준 작곡 ‘가야금 산조 등 장악에서 장악까지 다 연주하는 가야금 독주를 들려주었다.

정 효성은 오묘 예쁜 국악과 멋진 현대음악을 혼합하고 박사과정 수료했으며 민간문화재단 활동 중 정효성으로부터 국악과 가야금 산조, 지문과 정효성 연주 금연류 가야금산조를 청문받았고, 서울대에서 강사했다.

2005 AFPC 정상만찬 문화공연 가야금 독주, 24시 난스탑 콘서트 다수의 국내 무대와 미국, 영국, 홍콩 등 국제무대에서 연주했으며, 지난해 7월 정효성 연주회의 레퍼토리 센터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혜민 동문 전시회

이혜민 동문이 캘리포니아 알버타의 ‘아티스트 인 워크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EBCN(영국)에서 지평을 오르는 이혜민 동문이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소프타운트 아트’ 전시회다.

이혜민 동문과 친구 출신 유대도 보컬리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유대도 보컬리스트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술사 전공하는데도 미술사 작품을 주로 아내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혜민 동문의 경우 서울대에서 조각을 전공 유학하며 거처 뉴욕과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혜민 동문 전시에서 작은 배려로 미술사 전공하는데도 미술사 작품을 주로 아내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황보한 박사 '문학의 봄' 신인상

한국 문단에 등단해 단편소설 '문학의 봄' 발표, 수상 영예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황보한 (공대 56·사건) 공학박사가 문단에 등단했다.

황보한 박사는 단편소설 '50년 만의 봄'으로 올해 '문학의 봄 작가'가 주재한 제20회 신인상 공모 소설 부문에 당선된 것이다.

작품은 1월 1일 발행된 '문학의 봄' 1 - 2월호에 게재됐다. '50년 만의 봄'은, 50년 만에 한국의 가족과 상흔을 북한 가족 망향단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황보한 박사는 1998년경으로 모교 공대를 졸업한 뒤 코네티컷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황보한 박사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한국문학 신인상시상단에서 모교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인문기독교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최고 책임자인, '미스터 부공황'으로 불린다.

초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지낸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개척자다.

황보한 박사는 청담대 조교수, 한국에 출생한 뒤 중퇴한 후 젊은 시절 영어인재 재가(가)기 위해 그동안 부지런히 창작 활동을 해왔다.***

반기문 UN사후총장 기자단 송년만찬

반기문(사건)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단을 대고 축사했다. 순간 미국 국가안전보장(NSA) 요원은 패자를 물었다.

10분쯤 지난 후 반기문 총장은 과거 제단을 받은 뒤 현관으로 돌아갔다.

반기문 총장이 지난 해 12월 18일 뉴욕과 워싱턴의 펜트마크 식당 피트리아나에서 열린 유엔 안전이사회(NCA) 주최 송년 만찬에서 비디오텍 영상에 등장했다.

반기문 총장은 매년 이 모임에서 우여가 넘치는 연설로 인기를 얻는다.

올해는 미국 NSA의 도청을 비판하는 동영상에 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해 이들을 모두 알아보고 이들을 모든 선물들을 제공했으나 카메라와 컴퓨터를 빼앗겼다는 미처 알려지지 못하고 놓쳤다. 따라서 한 순간 반 총장의 입수 업무들이 모두 도청된 것이다.

반 총장은 아같은 도청 사실을 알아보고 이들을 "현금들을 갖"이라는 말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당장은 반 총장 아내를 따라가서 한 달간 와서 현금들 반기문과 신소한다.

이러한 총장이 가수 스티비 윈더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사무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흘리는 직원과 담배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접했다.

도청당한 반 총장의 지극한 '트위킹(Twerking) 춤'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반 총장의 비리를 캐내보려고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주시했더니 결국 크게 허탈을 치고 말았다.***

반 총장은 지난 해 이들을 모두 알아보고 이들을 모든 선물들을 제공했으나 카메라와 컴퓨터를 빼앗겼다는 미처 알려지지 못하고 놓쳤다. 따라서 한 순간 반 총장의 입수 업무들이 모두 도청된 것이다.

반 총장은 아같은 도청 사실을 알아보고 이들을 "현금들을 갖"이라는 말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당장은 반 총장 아내를 따라가서 한 달간 와서 현금들 반기문과 신소한다.

이러한 총장이 가수 스티비 윈더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사무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흘리는 직원과 담배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을 접했다.

도청당한 반 총장의 지극한 '트위킹(Twerking) 춤'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반 총장의 비리를 캐내보려고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주시했더니 결국 크게 허탈을 치고 말았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반 총장은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밀리에 온갖 도청 장치가 부착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김학동 동문 조지워싱턴대서 학술행사

지난 해 12월 2일 카이로 선언 (1943년) 제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학술행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연립한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이사장 김학동·문리 61)과 연립한 국제대학원 아시아 센터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역사의 화해와 동북아의 번영'이라는 주제로 한미 학자들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카이로 선언은 2차 대전의 전행으로 지난 1943년 12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그리고 제임스 카메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였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 주제 강연을 나선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엘리노어 루즈벨트 대 교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대일 주 전쟁에서의 아시아 지역적 대일 패권 회복을 지지하고 미국 우방국들의 민족 자결을 추진하는 데 있었다"는 2차 대전 이후 전개된 동맹으로 이리 한 뜻이 화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사항 한국대 교수(문리 60)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여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도를 우리 대의 내지(내지)가 되기 위해 그동안 부지런히 창작 활동을 해왔다.***

간도 거주인 대학원 호로부하(하) 교수는 일본인의 전쟁과 전쟁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 비인도적(비인도적)으로 조지워싱턴대

한문 연구, 특히 독도의 전쟁과 역사적 과오에 대한 역사적 의사와 유형에 초점을 맞춘 닥트(Dact) 대학의 린트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과거를 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대학의 버거 교수는 유엔에서든 사회과학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 겹쳤으며 국제 정치적 여건, 관련된 이익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중·일 국가가 중 양자 및 삼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역사 자결문제에 대해 조지워싱턴대의 양(Qing Yang) 교수는 "외국인들이 만든 공통의 공동 역사적 프로젝트가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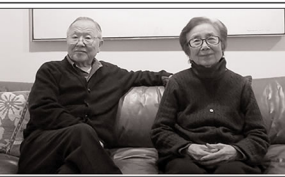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본파별 토론에 앞서는 영토 문제, 인권문제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김태 박사 '김태 메모아' 출간

웨스턴한 한인 예술인 사람 고스 단편집 '김태 메모아' 발매

김태(Matthew Kim, 46 뉴욕)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평민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마한 냉전이 될,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미국행을 한 뒤

미국으로 64년부터 마이 브룩(Rye Brook)에 살기 시작한 제임스 매트레이(James Matray) 박사는 192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미국에 오기 전, "이제는 냉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 그릇을 그렸고

의 초기 여성 권운으로 이들을 한 김발봉과 양(양)이 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의 초기 여성 권운으로 이들을 한 김발봉과 양(양)이 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김발봉의 아내가 되었다. 장복 동년 시절 김발봉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미주 동향시보 지난 12월호 3면 왼쪽 하단의 '뉴스(사건) 49' 동문 1면 밑에 '기공' 기사에서 '사건 49'는 '사건 49'의 잘못 표기기에 바로잡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 12월 23일, (604) 941-8165, 연락처 (604) 785-1270 e-mail: seesung@seesung.co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시정(공대 68) 동문 별모상



워싱턴 DC 동창회

Westin Tysons Corner서 송년회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함은선, 서울대 77)가 지난 해 12월 15일 버지니아 Leesburg Pike, Falls Church의 Westin Tysons Corner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는 정제된 음식의 사회로 함은선 회장의 환영사,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의 축사, 손재욱 차기 미주 동창회장 축사, 장경태 워싱턴 DC 동창회 부회장의 활동보고,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 광고 및 동문 소식, 관악 5중주 연주, 정은호(학대 43) 전 동창회장의 간담 제의를 위한 어동 등으로 이어졌다.

오인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 12대 미주 동창회가 DC지역에서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순조롭게 운영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데 힘입어 지역 동문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고 “2014년을 미주 동창회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발전을 시도하게 돼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손재욱(가정 77) 차기 미주 동창회장은 이날 부군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3시간이나 운레와 참석함으로써 큰 환영을 받았다. 감사패는 박윤수(문대 48)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 조순자(화학 52), 권기현(사대 53) 워싱턴 동창회 전 회장, 박용길(학대 56) 동문, 이영택(광대 59)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서윤석(의대

→첫줄 왼쪽부터 조순자(화학 52) 권기현(사대 53) 이영택(광대 59) 전 회장이 함은선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아래 왼쪽 사진은 손재욱 차기 미주동창회장과 부군, 오른쪽 사진은 장학금을 받은 이지현(영문 04) 동문.

62) 미주 동창회 편집위원 등이 받게 됐으나 박윤수 전 회장과 서윤석 박용길 동문은 참석하지 못했다.

또 장학금은 박영삼(전산 99, UMD 전산 박사과정)·이지현(영문 01, Johns Hopkins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동문이 각각 받게 됐는데 박 동문은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함은선 회장의 환영사 중 일부다. “2013년 개사년이 마감하며 선 후배들이 같이 모이는 송년파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33대 동창회가 출범한지도 1년 만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두번에 걸친 관악연대 Happy Hour

를 통해 30여 명의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가입했고, 구경정 차관을 많이 가입하고 세 배를 얻어 많은 동문들이 사랑을 하며 맥락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많은 장학제도가 도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장예인을 위한 기금으로 자선 음악회인 ‘Juilliard with Pride’를 개최해 5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동창회가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이 동문사회에 커다란 기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 다. 원 동창회의 기초가 되어온 선배님들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젊은 동문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동창회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날 전일 회창들이 선물을 한 두개씩 준비해 퀴즈를 통해 동문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흥분과 즐겁고 풍성한 Banquet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 양은호(학대 43) 전 회창이 간담회 제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 가곡 관악 5중주로 분위기 가득

이날 특히 동문 음악인 가곡과 미 공군 관악대원 3명이 여중생들을 이용해 특별 연주할 예정이었던 송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미 공군 관악대원 3명은 동문 부인, 한국인 부인, 또는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음악인들로 더욱 관심을 보였다.

trabone의 유홍중(학대 83) 등

문과 horn의 송주호(음대 86) 부부 동문을 비롯해 trumpet과 tuba의 연주해 온 3명의 미국인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3명의 미국인 중 Mr. David Kucharski는 부인이 서울대 88 학번으로 알려져 있다.

또 Lightner Kucharski 역시 부인이 한국인이요 Rosch는 우리

1원쪽부터 유홍중·송주호 부부 동문과 미 공군 관악대원 David Kucharski·Rosch 등이 무대의 인기 가요곡 ‘사랑으로’를 연주하고 있다.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날 그를 사운드로 ‘해바라기’의 인기곡 ‘사랑으로’를 비롯해 ‘한오백년’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과 많은 로베상스 가곡들을 들려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렉싱턴에서 연말 파티 열어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지난 해 12월 7일 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s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가운데 화가에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파티에서는 제2부에서 새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슈 분야별 동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음대 동문들의 모차르트와 연주에 이어, 외대 동문의 '보코스와 피바노' 사회대 동문의 '눈뜬 잠넬 - 인사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사범대 동문의 '3대에 미치는 내 성실의 영향' 등의 유익한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 발표한 작은 세미나를 세로 시도한 것이다.

이 시간엔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동문들끼리 친밀한 교류를 나누는 길이와 재미를 함께한 연말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날 저녁 준비한 추첨을 통해서 장석자들에게 축하금을 내렸다.

이어 제3부 'Saturday Night Fever' 순서에서는 전문강사의 인도를 통해 최신 유행곡에 맞춰 춤바 댄스를 배우며 연말파티의 흥겨움을 더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동문 주소록이 발간되어 이번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장수인 회장은 "이번 행사가 50학년부터 04학번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어우러져,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총평하

1뉴잉글랜드 동창회 연말 파티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동창회 모임 행사에서 유쾌하게 웃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각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에서 한 동문이 주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며 다들 행사로는 분절 산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창회 홈페이지(<http://sites.google.com/site/snuuane/>)에서 동창회 소식과 행사 사진 등을 볼 수 있고 기타 문의는 snuuan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

◀사진 - 이재철 기획위원>

→모차르트의 곡 연주에 이어 음대 동문들이 멋진 화음을 들려주었다. 음대 동문들은 행사 덕에 다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다.



납가주 관악연대

용수산서 2013년 '해결잔치'

납가주 관악연대의 한 해를 마감하는 '해결잔치'가 지난 해 12월 7일 LA 한인타운의 '용수산'에서 열렸다. 용수산 2층의 넓직한 연회장에는 풍성한 음식과 화이이 가득한 가운데 연대마다 시 달나 반가운 얼굴들의 미소와 웃음이 넘쳐났다.

이번 신혜원 연대장-공성식 총무 콤비의 철저한 준비 덕에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 회고하는 의미있는 순서부터 2014년 신입 연대장 선출, 그 그리고 멋진 공연들로 이어졌고, 행사는 예고환 대표 '보코스와 피바노 열기'가 분출하는 신

나는 북고 테스파티와 래플 추첨으로 대단원을 장식했다.

이날 2014년 관악연대를 이끌어갈 신입 연대장으로 고경범(법대 78) 동문이 우뚝과 같은 만장일치를 제수해 통해 선출됐다. 관악연대 회장 비우연을 자청하는 고경범 신입 연대장은 "관악연대에 나온지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게 많아 맞는 심정으로 연대장직을 수락했다"며 "2014년 한 해 신나게 놀아보겠다"고 취임을 밝혔다. 이날 해결잔치에서는 특별 무대



1신혜원(왼쪽) 연대장이 신입 고경범 연대장과 인사하고 있다.

로 음대 출신 유병 연주자들이 나와 멋진 공연을 펼쳐 행사를 한층 빛나게 했다. 성악가 김일두 동문(성악 98)의 독창을 필두로 마이얼리스트 조기현 동문(기악 02)이 사라사테의 페고이 네트파이제를 선들린 듯 연주해 기발마수를 벌였고, 피아니스트 제갈소동 동문(피아노 02)이 독주로 멋진 마무리를 했다.

이어 고경범 신입 연대장이 새로 시작한 책서본 송복을 선보인 순서와 신혜원 연대장-공성식 총무의 합력한 커피 댄스는 특별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어느 때 무대는 그 옛날의 '디스코

텍'으로 바뀌어 모두들 몸을 흔들며 뜨거운 열정을 분출하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날 최고 황혼의 주인공은 이창열(금속 85)-허정희(간호 85) 부부와 딸 이수민(8학년)왕 가족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신서원 대표를 추첨해서 유익하게 자라 세대 대표로 참가한 이수민 양이 단 하나 뿐인 책꽂에 달춰려 현금 500원씩 상금을 거머쥐었다. 이어 이창열 동문은 축사에서 상금 중 200달러를 다시 관악연대에 기부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 큰 박수를 받았다. ***

◀사진 - 고경범, 박천현>



남기주 공대 동창회

LA '작가의 집' 에서 송년회 가져

남기주 공대 동창회(회장 양민, 공업화학 77)가 정기 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지난 해 12월 13일 금요일 LA '작가의 집' 에서 개최했다.

양민 회장의 사회로 작고한 3명의 동문(조종용·화공45, 김용·기계 60, 김수용·응용수학 66)에 대한 추모 묵념과 시 낭송(최용환·건축 57·미주동창회 노석위원, 김문희 국제 펜클럽 미주 연합회장·공대 68 김병연 동문 부인) 등으로 경건히 진행되었다.

정형조 초대 회장의 격려사와 김상원(문리대 65) 남기주 총동창회장의 축사, 고경범 관악연대 초기 회장의 축사에 이어 사립보고 및 재무보고가 있었다.

이어 2014년도를 이끌어갈 회장 선출에서는 김영도(기계 67) 동문을 만장일치로 신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부 동문 및 모든 동문들에게 기념 사인을 커다란 액자에 넣어 기념함으로써 영원히 기억에 남을 행사로 장식하였다.

사전을 일일이 적어온 고경범 관악연대 자기 회장의 수고로 내

년도 관악연대의 더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게 해 주었다.

김병연 동문 부부가 직접 운영 중인 '작가의 집' 에서 만찬이진저니 석사는 맛있는 밑반찬과 더불어 20가지가 넘는 푸짐한 음식에 동문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아왔다.

그동안 피아노 독주를 선사한 제갈소영(음대 03)동문은 현재 ISO에 전담 장학금으로 재학 중으로 연이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행을 연주하는 기도와 연주된 아름다운 선율로 동문들의 기쁨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제2부 사회는 Hank Im(사대 73) 동문이 박수 게임과 라인 댄스 그 두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이날 양민 회장은 노영호(건축 61)·김원만(전자 65)·김병연(응용수학 68)·서치원(전자 69)·홍광식(조선항공 62)·김경부(응용수학 69)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개숙적인 거실에 대한 당부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감사패를 받은 6명의 동문들은 앞으로 열심히 많은 회원들을 속하는데 동시에 송년회 저녁을 공동 동문들에게 제공하는 훌륭한 정



1열 사진 왼쪽부터 공로패를 받은 노영호 전 회장, 작고 동문에 대한 추모 시를 낭송한 김문희 국제 펜클럽 미주 연합회장과 최용환·김용과 미주 동창회 노석위원.

을 베풀었다. 이날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개 동창회를 이끌어 온 양민 회장에 그 수고와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글·사진 = 미주동창회 배옥자(음대 71) 조직국장>

“남기주 공대 동창회는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촉진하며, 새해에도 남기주 공대 동문 여러분들의 단합과 동문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양민 전 회장

◆ 2013년 임원진 ◆

회 장 : 양 민(공업화학 77)
부회장 : 김용상(항공 79)
수석 총무국장 : 박찬민(기계 81)
총무국장 : 석호태(건축 85)

◆ 2014년 신입회장 ◆

김영도(기계 67) 949-254-9315
kimyoungdo304@hotmail.com



김영도 회장



남가주 동창회

Solvang에서 winery 행사 즐겨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상찬·문리대 65)가 이사회(임대 70) 차기 회장을 비롯한 53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14일 토요일을 맞아 winery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 동문들은 비스를 대절하여 LA 시내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말리브 해변과 산타 바바라를 지나 덴마크 마을로 잘 알려진 Solvang이라는 그림같은 마을로 갔다.

동문들은 Wine의 맛도 즐기는 한편 초겨울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소풍가들이를 겸해 떠났다.

"맛을 거지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듣고 찾아온 덴마크 이민자들이 비옥한 땅과 기후를 보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형성된다는 Solvang의 역사, 서니 필드(Sunny Field)라는 땅을 갖고 있는 술방은 덴마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용기둥이 모여 있는 가게와 길지 않은 블록, 뒷마당처럼 꾸며놓은 작은 공원, 우정만 나

→그림을 도네이션한 미대 동창회 출신에 전 회장(오른쪽)이 동문들과 기념촬영, 비스를 대절해 떠난 관저로 동문들이 아주 느긋하게 유희할 수 있었다(아래 왼쪽 사진).

무 그늘들이 정답고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림같은 거리였는데 동문들은 30여 분 정도 상점들을 둘러보았다.

이후 동문들은 winery에서 와인 맛을 즐기며, 만그스틀란 새칼에서 사랑하는 여인과의 한잔의 추억을 떠올리며 와인의 맛을 즐기는 여유를 가졌다.

부부 동반 동문은 와인 한 잔의 맛에서 멋정이 오갔으며, 홀로 온 동문들도 함께 한 여러 동문들과 그 향수를 기억에 남는 멋진 행사였다.

임원진에서 준비한 Sandwich and Cream Chowder Soup, Cranberry Cheese가 훌륭한 상태에서 와인 과 절친한 점심으로 일품이었다.



남가주 미대 동창회 출신에(미대 62) 전 회장의 그림 3점을 기증받아 경품으로 하는 은근한 기금 마련 이벤트도 있었다.

열린하계, 그리고 자연에 취한

동문들은 남만의 산타바바라 바닷가를 둘러 맑은 일몰을 마시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기형(상대 75) 총무국장의 훈훈한 사회로, 한 사람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여운이 길게 남는 행사를 마쳤다.***

◀글·사진 = 미주 동창회 백록자(임대 71) 조직국장>

“희망찬 새해를 맞아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남가주 농생대 동문 여러분들의 만복과 사업의 번창을 축원합니다. 농생대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신년 하례식과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생대 신년 하례식

- ▶ 일시 = 1월 18일 (토) 오후 6시
- ▶ 장소 = 만리장성 (Olympic & Dewey)

신구회장 이취임

- ▶ 이임 회장 = 이학진(농생대 71)
 - ▶ 신임 회장 = 정병혁(농생대 70)
-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장 이학진
jldi52@hotmail.com





남기주 상대 동창회

LA 로텍스 호텔에서 총회겸 송년회

남기주 상대 정기 총회 및 송년 모임이 지난 해 12월 21일 토요일 LA의 로텍스 호텔에서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상대 동창회 유병원(상대 76) 회장의 인사와 참석자 소개로 일련 이남 정기 총회 및 송년 모임의 제1부 행사에서는 상대 동창회 최고 원로 동문인 정원훈(상대 38) 전 은행장이 참석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정원훈 전 은행장은 가주 외환 은행, 한미은행, 아시아 은행, 신한은행 등의 설립자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 금융계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은 정원훈 전 회장님의 모습에서, 애뜻하게 동문님들과 마주하며 반기는 그 정겨운 만남은 앞으로 선배가 함께 하는 송년 모임의 진가를 더욱 느끼게 해주었다.

정원훈 전 은행장께서는 저서인 '은행 60년 : 금융 앞에 놓여'를 발간하시고, 은퇴 후 미술가협회 회원으로 초대된 및 서예전을 열며 활동하는 등 아직도 정경한 체력으로 상대 학내

2001학연 강홍 문물과도 함께 라인댄스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을 과시해주었다.

유병원 회장의 동문 참석자 소개에서는 미주 동창회 3대 회장을 역임한 이병관(상대 55) 전 회장, 역시 미주 동창회 회장 1대 회장을 역임한 김은중(상대 59) 전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상대 동창회 심상운(상대 54) 전 회장 등을 비롯해서 참석한 동문 한 분 한 분, 그리고 2부 사회자, 위생 기사 및 뒤에서 음향을 돕는 분까지 빠지지 않고 자비한 소개 해주었다.

지난 해 상대 동창회의 주요 행사는 두 번의 golf 대회를 치렀고 연말 즈음에 한국의 전통(상대 50) 전 국회의장과 유동원(상대 56) 명예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YTN News TV 주판)를 개최한 것이었다.

정원훈 전 회장의 추사와 이수근(상대 87) 사업가와의 사담이 곧 회계장전 감사보고, 골드뱅크 보충금 11백만원의 축하 경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축하 경연은 역시 상대 동창회의 활동한 힘을 타 대학대학에게 여실히 보여준



정원훈(상대 38, 왼쪽에서 네번째) 전 행장이 앞의 딸님과 함께 어르신에게 라인댄스를 즐기고 있다.

은 본보기가 됐다.

조만간(상대 58)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광국(상대 76) 신임 회장의 취임사에서는 새 시기를 맞이해 도 불신 상면으로 상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을 집약했다.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서 인지 동문 모두가 우렁찬 고가 제창을 했고 전원 기념 촬영이 끝난 뒤 신나는 제2부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2부 사회자는 작년도 수고해 준 유홍 전문인 여성으로 당찬 진행은 안마 게임, 다 함께 일어 서서 기차놀이, 라인댄스, 제기

차기, 퀴즈 등으로 활짝 웃음을 자아냈고 특히 4행시 '상과대'에서 나온 말속들은 참으로 기발하고 일품이었다.

그중 하나의 액을 들면, "상대나온 농과 결혼하니 과일은 커녕 밭도 못 먹어 대농과 불평할 수도 없고, 대박하고 결혼하면 안되리라" (김광국 신임회장) 이 4행시는 다시 행를 총이 아닌 행를 시를 받아 다시 재 연구 되는 열광을 누렸다.

많은 동문들께서 상동 도네이션 (양은희 상대56, 황윤식 상대 66, 유병원 회장)을 하여 레를 티켓을 매대까지 앞두고 푸짐한 경품

이 준비된 덕택에 더욱 흥미로운 여흥의 행사가 되었다.

이 여흥 행사에서 30분을 계속 하여 끝까지 졸음 보인 상주경 (상대 68) 상대 동창회 전 회장이 '이 날의 총회 왕'으로 뽑혔으며, Mrs. 지인수(상대 59) 전 회장, Mrs. 유병원 회장은 경품에 뽑힌 상품을 다시 반환하는 아량이 아름다웠고, 강호식(상대 81) 부회장이 1등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기렸다.

이렇게 재미있는 하루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하신 2013년도 유병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부회장 강호식 상대 81, 김창숙 상대 79), 총무 이수근 상대 87) 여러 분께 박수를 보낸다.***

◀< 사진 > 미주 동창회 백목자(음대 71) 조적극장>

-원목 사진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수고해준 상대 동창회 회장단이 인사하는 장면. 왼쪽부터 총무 이수근(상대 87), 부회장 김광국(상대 76), 강호식(상대 81), 회장 유병원(상대 76).

오른쪽 사진은 신임 김광국(상대 76) 회장이 취임 인삿말을 하고 있는 장면임.





뉴욕 동창회

Hilton Hotel에서 송년회

뉴욕 동창회(회장 박상원 음대 69)가 지난 해 12월 14일 눈 폭풍 속에서도 뉴저지 Fort Lee에 있는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뉴욕 동창회는 인근 New Jersey주와 Connecticut 주를 아우르는 동창회로 35대에 이르는 역사 속에 1천 3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다. 송년회 사상 처음으로 눈폭풍이 예고됐는데, 아침부터 시작된 눈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지만, 미주동창회 오인환 회장께서 눈 폭풍을 뚫고 7시간 운전 끝에 참석하셨고, Philadelphia에서는 순박해 차기 미주 동창회장, 이한 1년 담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것은 도사관 의자를 하나 사는데 쓰인 것이다.

특히 이날의 중심은 일광수 송년회동창회에서 모금금 통해 장학금 지급을 세운 일과 그곳에서 생기는 입대수입이므로 재학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를 연구비로 지급되는 사할을 이준형 골든클럽 회장을 통해 장학금 지급을 이끌었다.

원로,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송년회를 지향하였다. 특히 이만택 미주재단 회장은 그동안 재단 사업으로 이뤄 온 모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꾸준히 노력해온 모교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였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동문들의 애교심에 따른 헌신과 기여로 명문대학이 됐다"는 이광수 총동창회장 말씀을 되새기는 기회였다.

각대일 시간은 눈 속을 어떻게 달리는 동문들이 따스한 미담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고가제대로 시작될 본 행사에서 뉴욕동창회 회원으로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1년 담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것은 도사관 의자를 하나 사는데 쓰인 것이다.

특히 이날의 중심은 일광수 송년회동창회에서 모금금 통해 장학금 지급을 세운 일과 그곳에서 생기는 입대수입이므로 재학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를 연구비로 지급되는 사할을 이준형 골든클럽 회장을 통해 장학금 지급을 이끌었다.



↑이준형(왼쪽에서 여덟번째) 골든클럽 회장이 신심한 '이준형 특지장학금' 수혜자들과 함께 했다.

다. 이준형 회장께서는 장학금일 건속에서 20만 달러를 재직하셨다. 특히 이날 '이준형 특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총동창회에서 만든 장학금 수여식이 처음 열려 4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축하,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그리고 뉴욕 동창회에서 7월 제로 마련한 동문 유학생 장학금도 5명의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뉴욕 장학금 모금의 어려움에 이준형 회장께서 1만 달러를 후원 약속하시며, 동창을 권유한 바, 2만 5천 달러가 모금되는 장면을 연출해 '역시 뉴욕 동창

회'라고 박수를 보냈다. 미주 동창회 오인환 회장의 '늘 같이 박사 학위'를 축하했는데, 그는 박사 학위 주제인 'leadership & group IQ'에 관해 축사를 했다. 한국인이나 서울대인들이 개인적으로도 우수하나, 여럿이 모인 것만이 강회되지 못하고 group intelligence가 약해지는 원인의 원인이 많이 주제였다.

07 학년 harp 정현화, 08 violin 오인환이 duet으로 Astor Piazzolla의 Histoire du Tango를 연주해 많은 감동을 주었다. Youtube에 들어가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즐기기를. 제너러시 후 radio anchor & DJ Paul Lee, dance director, Michelle Snow의 지도로 댄스 팀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다.

눈폭풍이 끝나지 않았으나, 열정적인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눈이 내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자되리라 믿으"라고 미담을 건네며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는 눈 속으로 안녕을 고했다.***

<박상원(음대 69) 회장>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NEW YORK
www.snuany.com



뉴욕 동창회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대 69학번 박상원입니다. 제35대 뉴욕동창회 회장에 취임해 지난 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동창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해 9월 20일 이사회를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개최했고, 10월 2일 Blue Hill Golf Course에서 추계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4일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동문들의 친목을 다지는 일들을 하였지만, 국립대학 동문회에 걸맞게 공익 사업을 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미주 재단, 서울대 중앙 도서관, 미주 동창회, 미주 동창회보, 그리고 뉴욕 동창회 장학회 사업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력가가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문 한 분 한 분이 모은 소중한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것도 값지다

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어떻게든 본 돈을 동창회를 통해 모아 모교 서울대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회장 박상원

Pay to the order of : SNU aany

Mail to : SNU aany, 81 Torchia Road, Cold Spring,

NY 10516

이름	이사회비 \$ 200	동창회비 \$ 50	후원금 \$

My Journey to America <4> 최용환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6>

최용환(공대 57)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베르디에 노가 물을 찾는 소리만이 들릴 뿐, 안개 안 암강 수면 위로 두 시간쯤 지났을까, 홀연히 소련군 파병용 소리가 따따따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였다. 가파른 강소리도 따따따 따따 울았다.

▶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 = 형과 나는 가나다로 포항 침몰로 파병 보냈지만, 침묵속이 어둠과 인간가 자욱함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총알 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소란하였다. 가나다는 총알이 휘둘러 떨어질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싹된 딸과 어머니의 머리를 이빨로 갈고 먹어먹고 기호하고 계셨다.

총소리는 차츰 조용해졌고 새벽 불을 튀김 우리는 목한 땅에 발을 뒹굴었다. 우리 가족은 달기 달기 물을 실기도 하고 차를 달기도 하여 이를 후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기차역 앞 광장은 넓고 쓸쓸했다. 가까운 여객에서 우리 가족은 몸을 흔들었다. 마침 우리는 돌아온 아버지는 개성으로 가는 기차 편을 알아보고 우리 형제와 누이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구경하고 인민군의 축구시합을 보았다. 우리 뒤에 아버지가 젊은이들이 앞으로 밀려오는 기차 앞으로 달려나갔었다.

이더러는 소련 헌병이 우리와 북한 인민들의 형을 때렸다. 북한 노동자 기선 외국인이 우리 인민족 젊은이의 형을 때리는 순간 내 어린 가슴에 아픔을 느꼈다.

▶ **파란빛으로 덮인 기차** = 기차는 평양역을 떠나 남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지만 내 목에 철 자라도 없고 기차 옆에 메달과도 자를 달지도 않고 기차 몸통은 온통 사할들로 덮였다. 우리는 다들 기차 안 의자에 앉았지만, 바닥에 앉은 신의 위에 놓고 무뎠을 땀 냄새는 속이 마셨다.

열두 주 몇 달이 지나면 철이 이 여인의 지칠만 읍소소리가 들렸고 장 밖으로 하얀 보자기에 싸인 우리에게 죽은 검은 머리를 머리고 안으로 주는 검은 머리를 열 사발에 보라 색이 뚫어 죽은 아기를 때려야 장차 못 배고 고 이야기해 주었다. 기차는

말없이 철길 따라 달린다고 있었다.

▶ **인민군에게 잡혔다**가 끝까지 주고 베풀어 = 이것이 가까워지면 우리 사라는 며칠 동안 길을 걷고도 걸었다. 드디어 인민군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산길에서 우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4남매를 데리고 조종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그들 세일 우리들이 인민군 장교를 붙들고 코피를 흘렸다. 어머니 손가락의 금반지를 빼주느라 쓴 것이다.

장교는 우리를 인솔해 학교에 내려놓고 계속 전선터 멀리 총포와 새 군복을 입은 남한 군인들과 마주 앉았다. 장교는 우리에게 왜 가는지 묻고 싶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이 뜨고 싶었다. 내에게는 조종사임과 함께 한 것이었다. 기다리다가는 미군 개입을 우리들 지켜보고 큰 우리들은 UN과 같은 기구를 몸 안으로 두지 않았었다.

▶ **학살이 일어났다** = 우리들은 가까운 한 캠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보았다. 복을 먹고선 군인들의 경계선을 넘어 만주를 탈출하고 인민군과 정전선 38선을 넘겨 북한을 탈출한 우리들은 북한에서 웃음을 처음 보았다. 서울에서 기다리시던 할아버지

당할 수 없이 아버님의 정제시는 어머니와 아우들의 뒤편이 되고 말았다. 경향 배치된 일이었다.

미국의 대학 기숙사 생활은 누리가 졸업한 1970년대부터 우리 가족은 바빠졌다. 가장 보수적인 미시간 대학에서 시작해 많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는 남녀 혼숙 기숙사가 됐다.

내가 기숙사 생활하는 4년 동안 여학생들 내 방에 테러를 만들 용허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남에 여자 학생들과 사하는 대학생들은 바쁘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다.

▶ **영화 구경하다가** 공원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동안 영어도 쉬워지고 미국의 사생활 문화를 익혀나갔다. 내 나이 30 가까이 되도록 여자 친구가 없었기에 남자와 여자가 다른 영도 그대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 **내 대학생활은** 함께 유능한을 찾아가 술 마시고 춤을 추는 것도 보았었다. ▶ **그해 겨울** = 그해 겨울 2월엔 내 버니는 우리 관계에 적극적이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 학생은 학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내게게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 검은 옷을 좋아해서 완안 살레에 데크를 보이며 운동선생이 있어 나하고 취미가 맞았다. 검은색 차 운전할 때 꼭히 한참씩이다. 내 대학생활은 그렇게 대조되었다. 고등학교 때 이 이 사랑하는 남학생과 연애했다. 결혼했고 아이 있는 부부 생활 2년 만에 이혼한 후 학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교로 왔다고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여자가

“유학하기 전 증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나 우리는 비행기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장례식은 어머니와 아우들의 뒤편이 되고 말았다”

를 만났고 며칠 후 전담 남동생이 도착하였다. 그때까지 두 달 동안은 목부터 엉덩이까지 23살짜리 사할 가죽이 새싹을 피웠다.

▶ **한국전쟁 전란을 겪은** 여인 시절, 4.19 학생혁명 때 대대적 졸업, 5.16 군사정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 숭례문 복구 공사와 문화재 진문화, 미소사 20년 전쟁을 겪은 세대가 되었다.

▶ **유학 중 부친 일종의 도둑** = 아버지는 제방 부친 집에서 일하면서 경지에 부장이 되는 수치를 살아야 했고 교육 공무원도 바꾸어 총사장이자 정경을 받았었다. 내기 유학으로 전 증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아버님이 유학하기 유학하는 동안 돌아가셨다. 우리는 비행기표 비용을 감

했다. 당분간 과거의 아버지도 권했지만 내가 거절한 이후부터 다시 전향하였다. 반드시 내 양해를 얻고 피했다.

▶ **누가 좋아해서** 함께 마시고 주머니에 고추를 주는 유능인을 만나게 되었다. 둘은 미치고 술을 주게 되던 내 얼굴이 붉어지더니 누이가 술을 한잔과 놀려댔다.

▶ **한국의 기숙사**에서 알맞은 형과 누이를 귀찮아 한 양말 두 켤레 주고 고쳐주기를 부탁하였더니 어머니와 함께 꿰뚫어 다룬 날 들로 왔다.

▶ **이러니에게** 사귀는 한국 학생과 결혼하면 어머니도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졸업을 기다려도 혼돈도 좋다고 기쁜 소식인 듯 나에게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며 자기 아버지를 부양하는 부조리임을 의미하고 한다.

▶ **미칠 후 아버지를** 찾아가 내편한 여자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내 나이 20살인데 한국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사이라고 결혼은 적극 반대하고 절정할 듯 소식을 들려주었다. 나는 한 번도 미국 아내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해부터 우리는 차츰 멀어졌다. 남자는 여자를 제미로 사귀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사귀는 습관을 처음 알게 되었다.

▶ **6.25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들, 나, 남북으로 가는 기차리더 지중 휘라도 두조간 물러갔다.



194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지은 구 서울공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본관 면적 10,139㎡, 전기기전관 면적 8,863㎡이다. 지금의 형용구면은 서울시 노원구 172번지이다.

▶ **태몽 공대 재학생** = 공대 교정이 태몽에 있었기에 졸업한 뒤부터 학교 부근 마을에서 학생들을 왔다. 학교와 마을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때때로 밤을 듣다가는 겁이 났었다.

▶ **내 대학 생활**은 바쁘고 세바 기가 길을 공동묘지를 가르치려는 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머리 띠에 보크 시고 무서웠지만, 머니 후부터 익숙해져 직업을 즐기며 리가하는 듯 열차로 갔다.

▶ **아는 날** 새벽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소리가 가까워져 들었다. 가짜이 다가가면 소리 나는 듯도 울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사를 생각하 있었지만, 딸에게 도망가는 여자를 보고 안고 싶었다고 들었다.

▶ **학살지에서** 매일 밤샘을 들었다.

와 달리는 부락을 받았다. 한국에서 영구된 땅과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이런 일은 길이었다. 숙자는 부모를 일찍 잃고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헤어날 방법이 없었다. 틈에에서 손잡고 지어 본 공대 여인을 총 제할 여자가 되었다.

▶ **형과 누이는** 이미 결혼했고 나만 직장생활에 몰두하고 살면서 가끔 감기가 들면 심하게 앓았다. 어느 날 감기가 열이 오르고 머리를 마치 뒤편 혼자서 코를 골을 계속 대속하기 시작했다. 숙자와 나는 머리 둘 동안 만나면서 서로 더욱 친밀해졌고 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어느 정도 어려서인지 굳이 어둠으로 모르는 사이, 결국 헤어지기로 하였다.

▶ **공대생이 미 학생** = 내가 방을 얻은 작은 집 중에는 미국 여학생 두 명이 살고 있었다. 두 여학생 모두 남학생 친구들이 있어 주말이면 밤을 새워 놀다가 자고 가는 날을 자주 보았다.

▶ **그런데 어느** 날 별일 급우가 요란한 사이렌 울음을 내며 집 앞에 섰고 도로를 따라 돌리는 여학생을 실어다녔다.

▶ **미칠 후** 그 여학생은 회복해서 돌아왔지만, 다른 여학생이 나에게 머리를 두었다. 철창을 찾았어도 낙담을 시도한 후 술을 마시며 자다가 급우를 불렀다는 것이었다. 평생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면, 당시 유혈했던 여학생들의 낙담 방황이었다고 한다.

▶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한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한 때는 낙태를 허락하기도 했었다. 미국은 인민을 받아들이는 땅이 넓고 미국의 평등도 존중하거나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외 구경이다.

▶ **죽을 만하다** = 드디어 내 작은 이빨이 있었다. 물렁뼈도 하얗고 있는 시절이었고 직장을 할 때 동료 모임에서 만났다.

▶ **내가** 운을 좋아하기에 글쓰기, 테니스를 좋아했던 나 취미가 있었다. 함께 운동하며 알게 되었다. 연말 정산할 출을 쓰는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내 아내를 좋아하는 행로를 주려고 서졌다.

▶ **“잠깐 기다리라”** 하고 어머니가 사귀었다. 술을 못 주느냐 부하가 사귀었다. 함께 지냈지만 장 장부의 누이들이 미국으로 다고 비행장에서 마주하고 태



주소:		전 주소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H)		(C)	(Fax)	e-Mail:	
관악회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주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특별회원금	
연 \$200 □	2013.7-2014.6 \$75 □	2013.7-2013.12 \$120 □	▶방학크기(3.5" x 2") \$120 □	□	▶모로 발전기금 \$ □
연 \$500 □	2014.7-2015.6 \$75 □	2014.1-2014.6 \$120 □	□1/6면 (5" x 4.5") \$200 □	□	Brain Network 후원금 \$ □
연 \$1,000 □			□1/3면 (10" x 4.5") \$400 □	□	지부 분담금 \$ □
기타 \$ □			□1/2면 (10" x 6.7") \$600 □	□	종신 이사회 \$ 3,000 □
			□원면 (10" x 13.5") \$1000 □		
			□원면(Back 10" x13.5")\$1500 □		
보낼 곳: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 snuausa12@gmail.com					
지출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illegible]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건설/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왕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동해(노동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노동대 59) (310) 539-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stt1.net

C.P.A. CONSULTING ASSOCIATES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노동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공인회계사
강산용(상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광현 공인회계사
이광현 (민문대 76)
(3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5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6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632

운송/유통/물류/유통업체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4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약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수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민 양내과 · 혈액내과
정수민(약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626)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클리닉/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최고 현(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성대(노동대 80)
909-882-39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지각병원

황준오 D.O.S.
황준오(지대 73)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s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지대 81)
(213) 385-103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shsh@yahoo.com

Jun Chang CPA
장 준(민문대 85)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LA CA 91324

서비스/자동차/항공/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상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해당/크리 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il. 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551
5894 Francis Ave., Ohi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련 변호사
신혜련(상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부동산
(Investment & Development)
Jennie Chong Lee 이종효(간호대 69)
714-306-0328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207 Irvine CA 92606

재정/보험

Sam H. Cho
Insurance Consultant
CA License #14, # 9390122
5470 Wilshire Blvd., Suite 2000, Los Angeles, CA 90048
Tel: (213) 462-9083 Fax: (213) 462-9084
www.samcho.com

리태일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공대 59)
(313)627-0547
650 S. Hill St. #F 8 LA, CA 90014

우주개발/기술

TAVCO ENGINEERING, INC.
Suzanne* Arnold & Michael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2425 Canyon Blvd. P.O. Box 8034
Cupertino, California 95014, USA
Email: jta@tavo.com Tel: 1-714-950-0242
http://www.tavoeng.com

NJ-NY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광현(노동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태일리

New York Golf Center
이정현(노동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노동대 67)
(212) 685-0206
13 E 30th St. 271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환 (노동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부동산/상가

Evergreen Realty
이재현(노동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북가주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 300 Mil. View CA 94043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환(지대 66)
702-384-2828 702-447-1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PA 필라델피아

동창병원/건축 설계

GREGORY K. JOO, D.V.M.
MICHELLE CAMPBELL, V.M.D.
3000 CARROLL, VA, 22193



주거/의료(수의대 68) CORTLAND ARMY HOSPITAL
PHARMACY, Rt. 10111
Harrison, NJ 07033
Phone: (201) 748-9500
Fax: (201) 748-9500
Email: cortlandarmyhosp@comcast.net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2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6-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KJ Choo Chin
300
K&J Industries, Inc.
Houston, Texas 77057

Phone: 713-666-1644
Fax: 713-666-2718
Email: kchoochin@kchoochin.com

MD,VA 워싱턴DC

식자별원 컨설팅

이문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 926-9692

8201 Greenbelt Rd. Suite 100, College Park MD 20740
880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복현(경영대 84)
301-279-6866

414 Hungerford Dr. #253 Rockville MD 20850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OR 오레곤

Filonix Inc.
박희진(농대 78)
616-419-5333

P.O. 7416 Beaverton OR 97007

동문 신간

■ 일제시대 日親시절과
流通구조

—吳洙浩 지음

성관대 경제학부 吳洙浩(농경 제 68) 명예교수가 일제 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출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
이 책을 통해 자라는 일제가 도 일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서 조선 농민이 생산한 미곡이 상품으로서의 구실을 갖추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선인이 일본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조선인이 일본의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막대한 양의 미곡이 일제대에는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식민지 조선의 미곡시장에서 조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다.

〈경인문화사刊·값 34,000원〉

■ 나요당 민요집

—李勝謙 지음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민속을 익연구소 李勝謙(법학 63) - 68) 대로가 고리를 맞아 절친기념글을 펴냈다.

嚴壽泰 후 동문이 그동안 농촌에서 활약해 오던 민요들의 연구 주제가 될 곡을 선정해 악보를 붙여 해설했다.

북경에 중국 雲南省 麗江縣 시의 속가, 북한 반민자들의 민요, 일본 속가 소개도 담았다.

〈프랑켄스刊·값 20,000원〉

■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李忠南·崔維康 지음

대חק원 동창회의장을 맡고 있는 모로 병학부 崔維康(법학 66 - 70) 명예교수가 일제 강점기 서울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을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낯선지만 누구도 부각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로서 한 국교 기관의 역사를, 그로부터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학교육의 초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경성제국대학'의 정경과 인물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알았지만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단편을 소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경성제국 대학 시절의 정경과 인물들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두란수사刊·값 32,000원〉

■ 나와 스마일 이야기

—方在旭 지음

충남대 생명과학과 方在旭(생물과 66 - 75) 명예교수가 삶과 생명의 대한 글들을 엮은 수필집을 펴냈다.

총 3부로 구성된 1부에는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의 삶에 관한 글, 2부에는 '삶의 이해를 위한 생명의 이해'를 주제로 생명의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3부에는 '삶의 이해'를 주제로 '자아'를 주제로 '방명예교수가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자아'라는 글의 필진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친한 글들이 실려 있다.

평소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삶과 생명의 대한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생생한 사례로 제시해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사색의 실험으로 나아가게 인도해준다.

〈문학나무刊·값 12,000원〉

■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

—宋根源 지음

경성대 행정학과 宋根源(사회사학 69 - 73)교수가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차이점을 정리한 책.

1장에서는 변수와 인과관계, 2장에서는 시간의 개념 및 성격 등 통계분석의 기본적인 지식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3장과 4장에서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의미와 기본 모형, 기본 가정, 사용시 문제점과 한계,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장단점과 분석을 각각의 장으로 삼아 차례로 설명함으로써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이해를 도와준다.

이 책은 고급 통계기반인 아리마시계열분석뿐만 아니라, 회귀분석기법의 이해를 돕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한국학술정보刊·값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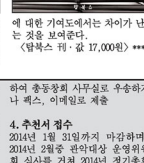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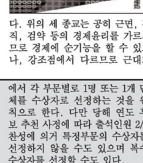
■ 종교와 경제

—李在律 지음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李在律(경제 72 - 76)교수가 종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종교와 경제는 인간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 종교 가운데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유교, 불교, 기독교의 세계관과 경제윤리가 개인, 기업의 경제행위 및 국가 경제발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했다.



제16회 '관악대상' 후보추천 안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회는 매년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와 관련 노고와 사색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우리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제16회 수상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단체)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1. 수상부문

①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② 학업성취: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적 헌신과 봉로 기여한 동문 및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③ 사회 공헌: 사회 공헌과 국가 발전에 대한 헌신과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공헌과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2. 추천 주요 사항(윤영규장 기준)

제7조(후보자 추천)

(1) 서울대원은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자 추천을 위해 소정 양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된 후보는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추천자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 이외에 다른 윤영규장 제230조의 관제에 의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추천절차에 대한 서신을 장외 보판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의 선정)

(1) 윤영규장은 추천된 후보 중

에서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명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후보 추천 사정에 따라 출석인원 2/3 찬성에 의거 특정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복수수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2) 수상자는 윤영규위원회에서 선정한 윤영규위원회는 윤영규위원회의 찬성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3. 구비서류

추천서, 피추천인 이력서 및 공적증명서(수상자의 경력)

※추천서를 다른 발송일 후 작성

하여 총동창회 사무실로 우송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

4. 추천서 제출

2014년 1월 31일까지 마감하며, 2014년 2월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4년 정기총회(2014년 3월 21일)에 상설위원회에서 시정 예정임

5.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 4-2, 서울대 연구원 본관 415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대표전화: 02-720-2223 /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이해기·독후감
기타 = 동창회보는 모든 동문
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나 연
세는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일인
적으로 편견된 내용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소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중재적으로도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광은 특
집이 아닌 경우 A-4(Letter)용
지 3-4매 이내로 일괄사진과 연
락자를 첨부해주시요.
▶My Journey to America = 동
문들의 지난 운 파기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용환(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
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과
실의 자식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많이 이용해주시
바랍니다. *** 편집주간***

‘편집후기’

○...내 글은 절대 한 군데도 고치
지 않고 그대로 내라 = 미주 각 지
역 혹은 고국으로부터도 동문들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각
종 모임과 행사에 대해 취재한 글
은 물론 시·수필·해고록·기행문·
독후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많은 분들은 글 밑에
에 ‘필자별이나 분장의 두서, 어
색한 표현 등은 편집자 나름대로
잘 고쳐주기를 바란다’ 는 내용을

첨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당한 말임이나 이런 편지
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신문을 써서
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는 반대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내 글은 절대 한 군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라’ 고 하는 수
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해서
는 경우지요. 물론 맞춤법이 바르고
문장 모든 곳의 기의 힘이 될 곳이
없으며 글의 분량도 적절한 경우라
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고국을 떠난지 오래된 동문일수록
우선 맞춤법에 약하기 마련입니

다. 우리 한글 맞춤법이 과거와는
완전히 많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요. 또한 문장의 두서와 다소 하
달되지 못한 표현 등은 동창회보를
위해서도 그대로 고쳐서 게재하
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편집
자의 권리이기도 한 의무입니다.
물론 편집자도 완전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할지도 해서 종종 독자들
부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
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
정할 아같은 차점은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주간***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김수성(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흥락
(국) · 오홍준(지) · 이영택(의) · 이진규(농) · 송승업(법)

명예회장: 김문중(상)

제12대 회장: 오인환(문)

지회 회장: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김민준(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이재진(문)
미주학사회 담당 부회장: 공준호(2)
관악시대 담당 부회장: 이현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미정

상임고문: 박윤수(문) · 이영택(법)

집행부 임원

사무국장: 정병희(공)
총무국장: 한영진(농)
조직국장: 박재욱(의)
재무국장: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함은선(음)
사업국장: 김정식(농)
선임국장: 이석진(농)
기금모금위원장: 권활수(의)
IT개발위원장: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오인환(문)
주필: 박 승업(의)
편집위원장: 장경태(사)
편집주간: 이기찬
편집위원: 장경의(공) · 서재석(의) · 이윤주(상) · 이해석(상)
정병희(공) · 장정식(농) · 정성택(의) · 함은선(음)
이재진(공)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이창열(법)

논설위원: 김양현(의) · 고병환(법) · 조준환(의) · 이재진(의)
최종원(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의)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원현(공) · 유재홍(문)
장석영(법) · 허봉수(사회) · 민영준(법) · 이영택(영)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운(의)
위원 = 서종민(공) · 이만연(법) · 윤상래(수의)
지리장(사) · 신승남(법) · 함은선(음)

감사: 박병일(농) · 주기숙(수의)

*사서·취재·기자직상·편집·디자인= 이기찬 편집주간
sruusauskj@gmail.com sruusaust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기주	회장	김상찬(문리 65)	714-503-1172	scskim@yahoo.com
	지회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it@gmail.com
북기주	회장	이창무(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s-nc.org
	지회회장	김희정(간호 73)	831-818-2959	acuheere@hotmail.com
뉴욕	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지회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승준(음대 76)	978-821-9434	sooinhee@comcast.net
	지회회장	이경애(인문 73)		
달라스	회장	최 인영(공대 70)	817-919-3057	yoonchoib@sbglobal.net
	지회회장	오영일(공대 73)	214-457-7974	kjyoungch@gmail.com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표한상(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지회회장			dryyfo@aol.com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지회회장			
샌디에고	회장	최홍수(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지회회장			
시카고	회장	김호복(상대 69)	847-657-8919	hkim@mccogong.com
	지회회장			
애틀랜타	회장	오문환(문리대)	yhohe@rathcon.com	
	지회회장			
앨라배마	회장	유재홍(음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지회회장	박석현(음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지회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외대 58)	614-378-2918	wonsong314@aol.com
	지회회장			
워싱턴 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i2010@gmail.com
	지회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이원철(사대 77)	206-954-1871(C)	425-643-6508
	수석총무	원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min.lim@microsoft.com
	회장	배유찬(공대 73)	801-474-1945	you.baee@yahoo.com
유타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원(상대 68)	215-459-3707	215-828-9011
	지회회장	강창석(외대 73)	314-363-8396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s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	512-663-0931	Juhee.william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부회장	유기봉(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박창원(문리 64)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지회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정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지회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회장	김경애(공대 75)	865-974-5292	kkim@utk.edu
테네시	지회회장			
	회장	김윤수(음대 75)	808-394-2669	ykim@hawaii.edu
하와이	지회회장	신복일(해방 77)		
	회장	이상진(외대 70)	918-687-1115	918-360-9178
하를랜드	지회회장	박혜송(음대 68)	913-481-1946	hyesong@earthlink.net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휴스턴	지회회장			
	회장	이명규(음대 69)	778-378-7339	myunkylee@gmail.com
캐나다 밴쿠버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serimlee@yahoo.com
	회장	조종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u@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부회장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이 있고

세계의 기준이 된 기술이 있고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아직 없기에

동아제약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美 FDA 신약 허가 신청

- 발기부전치료제 美 임상 3상 완료

-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해 치매 전문 연구센터 설립

글로벌 기술력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의약품 부문 동아ST와

일반의약품 부문 동아제약으로

동아쏘시오의 이름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80년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